『기독교사회윤리』 제24집
(2012) 151~183

다음 세대 청소년을 새롭게 이해하기

- 한국교회 공동체 내의 세대 간 갈등의 의미와 윤리적 가능성 -

박우영(감리교신학대학교 강사)

Ⅰ.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 공동체의 윤리적 위기 - 세대 간 갈등

Ⅱ. 다음 세대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한 윤리적 질문들

Ⅲ.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윤리적 가치구조의 차이

Ⅳ. 다음 세대 청소년을 열린 개방성으로 새롭게 읽기 위한 전제 조건

Ⅴ. 새로운 가능성의 존재와 교회의 역할

Ⅵ. 자신이 처한 기독교 전통을 다음 세대와 함께 읽기:
웨슬리 전통 새롭게 읽기

Ⅶ. 나가는 말: 기독교 사회윤리적 과제로서의 세대 간 관계 재설정

www.kci.go.kr

• ABSTRACT •

A New Understanding of Youth Members in Korean Churches through Generation Conflicts as Creative Ethical Possibilities

Park, Woo-Young

Youth members are not only 'beings in process' who physically and mentally grow but also dynamic 'beings in socialization' who get to obtain values of the society where they live. From this perspective of youth, it is necessary to raise some questions of how Korean churches have helped youth members to learn humane basic values and become active moral agents. These questions are related closely to the current task of Christian ethics in Korean churches. It is true that Korean churches have often pushed youth members to accept the spirit of fundamentalism and to have a uniformally fixed paradigm rather than have provided them with the realm of the tension between faith and reason. From this context, there has been a conflict between youth members and the older generation in Korean churches. I believe that resolving the conflict is not simply removing this conflict but transforming it into a radical motivation toward practicing the integrity of humanit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generation conflicts as new productive motives and ethical motivation toward putting basic humane values into practice. According to Larry Rasmussen, churches, communities of faith could function as an active field for the moral formation of youth and building collective moral identity. In addition, I suggest that youth members who have experienced the process of moral formation learn a spiritual and practical direction of their lives from John Wesley's notion of 'prevenient grace' and his 'practical asceticism,' that is, continual process of sanctification, a practical solidarity with the poor and the weak in society, concrete practices in stewardship, and practical use of money. This asceticism can help youth members not to go astray in the midst of global commercialism and consumerism. Finally, a new understanding of youth can give them a possible opportunity to become active moral agents who can do a 'self-reference writing' and to reset new relationships between youth members and the older generation.

Key words: Youth members, Generation conflicts and peace, moral agents, collective moral identity, practical asceticism

www.kci.go.kr

I.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 공동체의 윤리적 위기 - 세대 간 갈등

70-80년대의 소위 복음주의적 교회성장기를 경험하면서 근본주의적 영성에 뿌리를 내린 한국교회 공동체의 기성세대들과 신앙의 눈으로 자신들의 삶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다음 세대 청소년들 간의 갈등은 그것이 표면적이건 암묵적이건 교회와 사회 간의 대립적 갈등 상을 일면 반영하고 있다. 근본주의적 영성의 성서중심주의는 때로 그 도를 넘어서서 비이성적인 폐쇄적 변증주의와 자기방어의 논리를 더 견고히 하는데 사용되어져 왔다.[1] 이러한 영성에 영향을 받아온 신앙의 기성세대는 신앙공동체의 삶이 성서적 적합성과 사회적 적합성 모두를 균형있게 추구하기보다, 여전히 무비판적인 문자적 성서이해를 바탕으로 교회 지상주의적 삶의 실천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회적 적합성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추구해 볼 기회조차 빼앗긴 채로 교회 내에서 자라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사건 이래로 모든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도덕적 주체로서의 씨앗을 키워내지 못하는 삶의 구조적 억압 속에 놓여지고 있다.

신앙공동체의 모든 세대들이 그 삶의 자리가 각기 다르다고 하더라도,

---

1) Matthew Fox, 김영명, 문희춘 역, 『새로운 종교개혁: 창조영성과 기독교의 변혁에 관한 95개조 반박문』 (서울: 코나투스, 2010), 67-68. 폭스는 미국의 근본주의 신앙을 비판하는 빌 모이어스(Bill Moyers)의 2004년 12월 1일 하버드대 의과대 강연을 인용하면서 왜곡된 신앙과 이데올로기의 상호작용을 비판한다: "... 신학은 진리로 증명될 수 없는 명제들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역할을 해 줍니다. 또한 이데올로기는 실제 삶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모순이 될지라도 특정한 세계관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폭스와 모이어스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기독교 근본주의적 신앙과 체제유지적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서로를 강화시켜주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교회가 분단이데올로기, 후기 자본주의의 개발과 성장 이데올로기, 서열중심의 위계질서 이데올로기 등을 강화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회 내 통제와 질서를 획일적으로 유지해 온 것도 사실이다.

www.kci.go.kr

그들 모두가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율성을 발휘할 각각의 장을 서로 규제하고 억압하고 있다면, 아니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억압의 현실이며, 또한 부정의한 삶의 구조[2]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선한 삶을 향한 동기와 그 삶의 가치를 스스로 표현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러한 기회가 박탈당한 현실을 수긍하는 자세가 마치 신앙의 성숙인 것처럼 학습되어지는 현실은 신앙공동체 안의 세대 간 갈등을 다룰 때,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지점이다. 다른 이의 삶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의미 있게 스스로 이해하고 표현하려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의 획일적 신앙 가치체계 안에 가두어 몰아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풍성함, 삶의 다양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폭력적 시도에 대하여 한국교회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이러한 침해되어진 관계성을 읽어내는 시도 자체가 세대 간의 대립과 갈등을 새롭게 읽어내고, 새로운 관계 설정을 시도하는 시작 지점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관계설정을 시도하기 위하여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을 열린 가능성의 존재로 읽어나가기 위한 기독교윤리학적 질문들을 점검하고, 세대 간의 윤리적 가치구조의 차이를 밝혀냄으로써,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어떻게 생산적인 창조성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재설정 작업

2) 도덕적 주체로서의 삶을 규제하거나 억압하는 한국 교회 내의 흐름은 일면 신도들이 유교사회의 가치들에 익숙해 있었던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남녀 차별, 연장자 우선주의, 가부장적 권위로 대표되는 위계질서적 서열우선주의가 청소년들이 도덕적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 조차를 박탈하는 근거가 되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급진적 자유를 사회 가운데서 발휘할 기회보다 위계적 질서 가운데 통제의 관계성에 길들여져 온 한국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라. 박충구, 『예수의 윤리: 혼란과 갈등의 시대에 생명과 평화의 길 찾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60-63.

www.kci.go.kr

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과 자신이 처한 기독교 전통의 영성[3]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도 마지막으로 첨언하고자 한다.

II. 다음 세대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한 윤리적 질문들

한국사회 내, 특별히 한국교회 공동체 내의 세대 간 갈등의 문제에 접근해 가기 위해서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매우 핵심적이다. 왜냐하면, 건강한 관계의 기본은 관계의 양자가 주체와 주체로서 만나는 상호역동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신학자 샐리 맥페이그(Sallie McFague)는 모든 존재들의 만남을 주체와 대상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체와 주체들과의 관계 모델"(subject-subjects model)[4]로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이러한 그녀의 시도 이유는 관계를 주체와 주체들과의 관계로 이해할 때, 그 관계성은 도구적 효율성이나 우열의 구조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쁨, 건강함, 우정, 전인성이라는 가치들로 평가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을 새롭게 읽어내려는 기독교윤리학적 초점은 그들이 도덕적 주체로서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매우 역동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생물학적인 발육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의 과정 가운데 놓여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주변의 사회와의 관계성을 새롭게 형성해 가는 삶의 단계에 놓여있는 가능성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그러한

3) 필자의 경우, 신앙적인 도덕적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모태가 된 감리교 웨슬리 전통의 영성을 실례로 연구범위로 삼았다. 여기서 강조하려는 초점은, 자신이 처한 기독교 전통을 어떻게 청소년을 새롭게 이해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지 적극적이면서도 책임적인 해석 작업을 감당하는 것이다.

4) Sallie McFague, *Super, Natural Christians: How We Should Love Natur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36-41.

www.kci.go.kr

창조적 역동성 이외에 기존의 지배적 사회적 규범, 관습과 도덕을 습득하고 내면화하는 역설적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설적 위치 속에서 인간의 기본가치들(Grundwerte)의 중요성을 스스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삶을 표현해 낼 수 있는 도덕적 주체로서 자라날 수 있게 돕는 전략적 지점들, 즉 기독교윤리학적 점검 질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질문들은 한국사회 내 청소년들과 기성세대 간의 관계를 읽어나갈 때, 관계설정의 윤리적 지향점과 해석의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또한 기존의 관계성들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이다.

첫째, 한국 사회는 청소년 문제에 주로 관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청소년 존재 그 자체에 관심하고 있는가? 청소년들 자체를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는 극단적 시각이 사회 가운데 내재되어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의 단계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에 관심하면서, 청소년들, 그들을 하나의 존엄한 인간으로, 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인 시민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이 공유되고 있는가?[5] 이러한 질문들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주체와 주체들과의 만남으로서의 세대 간 만남이 보다 상호 존중적이며, 인간의 기본가치를 이루는 일을 함께 지향해 나가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도덕적 주체로서 의식화의 과정을 밟을 장이 형성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해방의 교육

5) 공현 외(인권교육센터 '들'),『인권, 교문을 넘다』(서울: 한겨레에듀, 2011), 24-25. 청소년을 이야기 할 때, 한국사회는 학교 폭력 문제, 왕따 문제, 성 문제, 입시 문제, 교권경시 문제 등을 통해서 청소년을 바라보는데 길들여져 있다. 청소년을 문제로 바라보는 기본적 시각에는 여전히 청소년을 온전한 인간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는 편견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다. '덜된 사람', '사람이 되어가는 존재'로 취급된다 …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람이 아닌 청소년에게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www.kci.go.kr

학자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의 지적처럼, 단순한 '주입식 교육'을 통한 사회적 기준을 만족시키는 체제 순응적 학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식 교육'을 통해 스스로 사회 내 관계와 현실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가능한 장 또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조한혜정 교수의 지적처럼, 한국사회는 특히 집약된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화의 역군,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학생이란 신분으로 청소년들을 규정해 왔다.[6] 이러한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모든 청소년들을 이해하려는 다소 무모해 보이는 시도가 국가주도적 통제라는 목적을 매우 효율적으로 달성해 온 것도 일면 사실이다. 청소년들의 삶이 학생으로 규정되어야만 한다는 한국사회 내 에토스는 학교를 넘어선 배움의 장을 허용하지 않는 암묵적 동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국가 주도적 입시라는 제도를 통하여 학생으로 존재하는 청소년들의 삶은 기존의 지배적 사회적 가치에 순응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학교가 아닌 다른 배움의 장, 성품형성의 공동체, 새로운 경험의 가능성들을 차단함으로써 학생의 자리에 있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논하기에 앞서 비행/불량 청소년으로 쉽게 이해되어지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극단적으로는 한국 사회 내에서는 학생과 비행/불량 청소년만이 존재할 뿐이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삶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걸어 나가는 청소년들의 새로운 삶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지 않은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7]

셋째, 청소년들이 지배적 사회적 규범과 가치 교육의 구조적 틀에서

6) 조한혜정, 『왜 지금, 청소년?』 (서울: 또 하나의 문화, 2002), 90-94.

7) 공현 외(인권교육센터 '들'), 22.
"인생의 일할을/ 나는 학교에서 배웠지/ 아마 그랬을 거야/ 매 맞고 침묵하는 법과/ 시기와 질투를 키우는 법/ 그리고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법과/ 경멸하는 자를/ 짐짓 존경하는 법/ 그 중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도움을 준 것은/ 그런 많은 법들 앞에 내 상상력을/ 최대한 굴복시키는 법"(유하의 시,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재인용)

www.kci.go.kr

해방되는 일이 중요한 만큼, 이러한 교육의 구조로부터의 청소년 해방은 어떠한 지향성을 담지해 내야 하는 것일까? 해방 그 자체가 그것으로 그쳐지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 해방을 경험한 존재가 지향해 나갈 사회적 과제들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 스스로 경험할 해방, 그 해방은 무엇을 위한 해방이 되어야 할까? 이 지점이 기독교윤리학적 시각과 가치로서의 열린 개방성이 작용해야 할 지점이 아닐까? 이러한 질문들은, 후기 자본주의시대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자기표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기존에 규정되어진 관계성들을 새롭게 재설정해 나가는 작업에 있어서 무엇을 자기 비판력의 준거적 가치로 삼을 것인지에 관한 질문들이다. 기독교윤리학은 해방의 과제 자체가 자기중심적 폐쇄적 과제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 공동의 선을 증진해 나가는 구체적인 사회적 과제들과 연관되어져야 함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와 관계를 재설정해 나갈 때,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해방적 과제는 무엇일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독교 신앙공동체는 그 일에 있어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넷째, 스스로 새롭게 이해되어진 청소년들, 기독교의 믿음을 고백하는 청소년들이 정립해 나갈 사회와의 관계성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교회와 사회가 어떻게 새롭게 관계해야 할까라는 커다란 질문과도 맞닿는다. 이미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교회가 사회의 한복판에 놓여있으며,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은 한국 사회 내의 시민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또한 획득해야 한다. 기독교인이라는 신앙적 정체성이 사회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삶의 상황성을 그들 스스로 어떻게 표현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청소년기를 경험하는 신앙인으로서 청소년들이 성서적 적합성과 사회적 적합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 나갈 것인가의 질문을 진지하고 책임 있게 물어

www.kci.go.kr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기독교 믿음을 가진 청소년들을 사회 내에서 관심 있게 읽어나감으로써 "신앙과 이성의 긴장관계"[8]를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그 긴장 관계의 현실적 영역이 기독교인과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책임적으로 상호작용 해 나갈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III.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윤리적 가치구조의 차이

한국사회 내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 간 갈등의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해야 할 하나의 이해가 있다. 그것은 갈등의 해결이란 과제보다 서로의 윤리적 가치구조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인식되어진 차이들은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 간에 새로운 창의적 접속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윤리적 가치구조의 차이는 그 자체가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만 이해되어져서는 안되며, 오히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지향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카오스적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세대 간의 윤리적 구조의 차이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 세대들에게 공동의 방향성을 함께 찾아가게 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소위 '패러다임 갭'(paradigm gap)이라고 불리는 사고의 평행적 대립은, 사실 서로 만나지는 않으나 같은 지향점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늘 마주 보고 함께 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읽혀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사고의 평행적 관계성이 상호 대립적, 상호 파괴적 가치구조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콘텍스트가 드러내는 각각의 가치의 구조를

8) 박충구, 70.

www.kci.go.kr

명확하고 공정하게 드러내는 일로서 이해되어질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평행적 대립에 앞서서 명확한 자기표현의 부재 또는 그 가능성의 부재가 갈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윤리적 가치구조를 스스로 책임 있게 표현하는 일이 야말로 각각의 세대에게 주어진 윤리적 소명을 실천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하며, 더 나아가 서로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자기 비판적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내 기성 세대가 대표하는 위치와 그들의 윤리적 가치구조는 어떠할까? 이러한 분석은 매우 유형론적일 수 있기에, 세부적인 기성 세대의 삶의 정황과 그 윤리적 가치구조를 세밀히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유형론적 분석이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 윤리적 차이를 전략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유효할 수 있다. 한국의 기성 세대는 근대 산업발전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해 온 세대이다. 보다 이전에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신민으로서의 국민교육의 잔재 가운데서 국가 발전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세대이고, 한국 전쟁 이후 근대적 국가 산업 발전과 생산에 초점을 맞추어진 시대를 살아온 세대이다. 심지어 국가적 계획경제의 발전이 가장 큰 삶의 윤리적 판단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유신독재 체제의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인권의 유보가 정당했다는 논리[9]가 이야기될 수 있는 저변의 가치구조를 기성 세대는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적 풍요를 이루어 내야만 하는 거대한 기획의 구조 속에서 인간다운 삶의 다양성과 개체성에 대한 존중보다는 집단적이고 때로는 전체주의적 가치

9) 2012년 말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유신체제의 현실적 불가피성을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연관시켜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게 된다. 거대한 담론 속에서 한 인간의 작은 이야기들이 지워지고 잊혀지는 일은 여전히 한국 사회 내에서 폭력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반증하는 하나의 전형적 사례이다.

www.kci.go.kr

조차도 용인하기도 한 삶을 기성 세대가 살아오기도 했다. 그렇기에, 한국 사회의 기성 세대는 경제적 생산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권위주의적 위계 질서 중심의 체계에 속하는 일에 익숙하며, 근대적 생산과 국가발전이라는 틀 안으로 복음의 가치구조 마저도 적합하게 변형시켜 오기도 하였다.

생존을 위한 생산과 발전, 거대한 국가주도적 계획 경제, 삶의 의미를 국가가 해석해 주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기성 세대의 지배적 윤리적 가치구조는 매우 질서신학적인 관계성을 드러내는 "수목적 체계"[10]를 갖는다. 여기서 질서신학적이라고 분석한 의미는, 기존에 설정된 위계적 관계들의 질서가 변화될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맹목적 절대적 구조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목적 체계"라고 분석한 의미는, 위계적 체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중심과의 관계가 없이는 어떠한 주체화의 과정도 불가능한 구조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의 나무를 가지고 설명해 본다면, 뻗어나가는 줄기들이 하나의 중심으로 결국 귀착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중심과 거리가 가까운 것과 멀어진 것 사이에 위계적 질서가 형성되기에, 보다 중심에 가까이 놓이려는 노력은 역설적으로 또 다른 통제에 스스로를 위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 내 기성 세대의 윤리적 가치구조를 "수목적 체계"라고 분석할 때, 그렇다면 그들이 관심하는 하나의 중심이란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문제는 그 중심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 사회에서 소위 '중심'에 가까이 놓여있다고 여겨지는 자신의 신화를 유지하는 일이다. 이러한 신화를 유지하고 지탱해 나

10) 이진경, 『노마디즘1』 (서울: 휴머니스트, 2002), 109-111. 들뢰즈와 가타리의 '수목적 체계'에 관한 이진경의 풀이를 참고하면, '수목적 체계'와 '리좀'의 차이는 중심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는가, 아니면 중심의 제거 또는 비중심적 체계에 초점을 맞추는가 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www.kci.go.kr

가는데,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명이 한국 교회 공동체 내의 기성 세대의 신앙적 사명과 맞닿을 때, 수목적 체계가 갖는 위계질서의 억압적 구조가 더욱 교묘하게 깊어지는 결과를 만들어 왔다. 뿐만 아니라, 기성 세대가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과 관계하고자 하는 기본적 가치구조가 이러한 수목적 체계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스스로 하나의 중심으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이제,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윤리적 가치구조를 살펴볼 차례이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이루어 놓은 경제적 기반 위에서 생산과 생존의 욕망보다는 감성적 향유의 가치에 움직이는 세대이다. 여전히 국가주도적 공교육 체계에 놓여있지만, 획일성 보다는 다양성, 집단성보다는 개체성을, 공동체적 가치보다는 개인적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세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들은 새롭고 진보적이며 자율적인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세대라는 특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다양성과 개체성, 개인적 가치에 관해서 배우기 시작한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세계화 경제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들이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적 상업주의가 주창하는 다양성과 개체성, 기존의 사회구조가 규정해 놓은 가치들을 내면화해 나가는 세대이기도 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박충구 교수는 자본주의적 성장의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성장한 신세대의 윤리적 성향을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이성적 가치보다 감성적 가치, 2) 생존의 가치보다 향유의 가치, 3) 권위주의가 아닌 합리주의, 4) 공동체적 가치보다 개인적 가치, 5) 성의 탈사유화, 6) 기존의 성과 속이란 구분에 대한 가치전환을 신세대들이 지향하고 선호한다고 분석했다.[11] 이러한 분석은 여전히 오늘 날의 청소년들의 윤리적 성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분석의 틀을 제공

11) 박충구,『한국사회와 기독교윤리』(서울: 성서연구사, 1995), 116-122.

www.kci.go.kr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윤리적 가치성향들은 기성 세대가 대표하는 하나의 중심을 따라 이루어진 위계적 수목적 체계와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듯하다. 그러나, 비중심적 체계로서 이질적인 것들이 다양하게 접속하여 이루어진 "리좀"(rhizome)[12]적 체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윤리적 가치구조라고 보기는 또한 어렵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청소년들이 위치한 역설적 자리는 기존의 지배적 가치구조와 자본주의적 상업적 힘의 구조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지향해 나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으로서의 리좀적 체계의 가능성을 다음 세대인 청소년의 윤리적 가치구조가 상대적으로 더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이러한 윤리적 가치 구조의 특성들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지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청소년들이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왜곡되어진 인간성의 부분들과 관계성들을 회복해 가는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지향해 갈 수 있을까? 그들 스스로 자기 비판적 사유와 실천의 점검 기준들을 어떻게 의식화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계속 물어져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이러한 세대 간 가치구조의 대립적 양태는 사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삶의 내재적 역설의 구조를 드러내고 있는 지점이다.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라는 윤리적 과제는, 사실 갈등의 해소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러한

12) 이진경, 91-108. 들뢰즈와 가타리가 주장하는 '리좀'의 특징을 이진경은 1) 접속의 원리, 2) 이질성의 원리, 3) 다양성의 원리, 4) 비의미적 단절의 원리, 5) 지도그리기와 전사술의 원리로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의 공통점은, 서로 전혀 다른 지층들이 만나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전적으로 새로운 의미들이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특징들이다. 단순히 중심과 관계하거나, 중심을 모방 또는 모사하는 관계가 아니라, 중심과의 단절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중심을 제거하는 비중심적 체계를 통해서 기존의 지배적 영토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www.kci.go.kr

가치와 삶의 양태의 갈등이 어떠한 창조적 대화, 생산의 장을 거쳐서 인간의 기본가치에 대한 추구와 실천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통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인 현재 청소년들은 기성 세대와의 갈등의 구조 속에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뿐 그것을 "생산적인 저항"[13]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기성 세대는 여전히 위계질서적 체계 안에서 동일성의 지배원리로 청소년들을 바라보고자 욕망하기 때문이다. 과연, 리좀적 체계가 말하고 있는 다양한 이질적인 것들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서로 접속하여 기존에 상상해 보지 못했던 가능성을 창출해 내는 작업은 세대 간 만남의 자리에서는 불가능한 것일까? 가능하다면, 무엇이 그 문을 여는 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IV. 다음 세대 청소년을 열린 개방성으로 새롭게 읽기 위한 전제 조건

보호 받아야만 할 대상, 지도 감독의 대상, 또는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서 누군가가 규정되어질 수 있다는 이해, 그러한 인간이 존재한다는 논리 자체에 대하여 기독교 영성의 깊은 평화 지향적 전통들[14]은 꾸준히 저항해 왔다. 이러한 인간 이해에는 우열의 구분과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힘과 권력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불평등의 구조를 영구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기독교 평화전통

13) 조한혜정,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 (서울: 또 하나의 문화, 2000), 158.

14) 넓은 의미로는 기독교 전통의 깊은 뿌리를 드러내는 성례주의 영성 전통, 신비주의 영성 전통, 예언자적 해방 영성 전통, 금욕주의 영성 전통 등이 각각 존재들의 관계성을 다양하게 해치는 현대의 도구주의, 소외와 대상화, 억압, 소비주의의 지배적 영성에 저항하고 대안적 사고와 삶의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www.kci.go.kr

들은 의문을 제기해 왔다. 특별히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내재되어 있는 존재로서 그 안에 도덕적 능력을 계발하여 실현할 가능성의 존재로 여겨져 왔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보호받거나, 엄격한 관리나 선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고정불변의 논리 그 자체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나에게 부여된 신성한 인간성을 부분적으로 부인하고, 수동적 방관자로서의 사회적 구성원을 양산하는 일에 쓰여져 왔다. 또한 이러한 통제와 규율의 논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갈 다양한 실천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일에 쓰여져 왔다. 왜냐하면, 아직은 관리되고 보호되고 규제되어야 할 영적인 미성숙한 자와 교육할 권위를 가진 성숙한 자로서의 이분법적 구조[15]를 지탱하는 저변의 논리로 쓰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국 사회 내 다음 세대 청소년을 보호와 지도의 대상인 미성숙한 존재로 단순히 규정하는 시도[16]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을 열린 개방성의 존재로 다시 읽어내려는 시도는, 그들이 가진 윤리적 가치의 지향성을 생산적 저항의 윤리, 탈중심주의, 건강한 개인주의, 비합리적 권위나 특정 권력에 저항할 창의적 가능성으로 그들 스스로 읽어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을 열린 가능성으로 적극적으

15)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의 전형적인 형식은 남성/여성, 문명인/미개인, 서구인/비서구인, 백인/유색인, 기독교인/타종교인 등으로 역사 가운데서 나타났었고, 크게는 중심부/주변부의 이분법적 구조로서 다중심성의 출현 자체를 막아서는 역할을 해 왔다.

16) 공현 외(인권교육센터 '들'), 243-245. 삶이 모든 영역에서 성숙한 사람이 존재하는가? 또한 성숙의 잣대가 나이의 많고 적음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이가 많은 성인들은 모든 일에 성숙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청소년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미숙한 것인가? 인권교육센터 '들'은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청소년들이 책임없는 행동을 하고, 미성숙하기에 그들에게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원인을 짚어 보기 전에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쩌면 성숙할 기회를 빼앗은 타율과 통제가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을 낳은 이유는 아니었을까" 반문한다. 청소년에게 미성숙이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가 제도화된 미성숙을 청소년들에게 강요함으로 그들을 통제하는 것은 아닐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www.kci.go.kr

로 이해하기 위해 기성 세대들이 인정해야 할 현실적 가치구조는 무엇일까?

첫째, 기성 세대의 대표적 윤리적 가치 중 하나는 동일성(identity)의 가치이다. 이를 집요하게 강요함으로써 집단에 소속된 가치의 구조를 주입하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해 가도록 이끌어간다. 이러한 삶의 구조 가운데서 직면하는 청소년들의 심각한 위기는 스스로의 삶을 자기 성찰적으로 평가할 기회조차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재단되어진 동일성의 가치구조가 다양한 청소년들의 삶의 의미를 표현할 근거를 박탈하고 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규정된 대로 찾아가는 청소년들을 성숙하다고 말하는 모순적 구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성 세대의 경우, 자신들이 사회의 지배적 가치구조에 따라 살아온 경험에 의하여 다음 세대의 사유의 형식을 지배하기 원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사유의 폭력이자 서로의 상호존중의 평화적 관계성을 그 근본부터 빼앗아가는 시도임을 인정해야 한다. 사유의 형식과 내용을 지배하는 한국 사회 내 대표적 방법은, 미쉘 푸코(M. Foucault)의 지적처럼 자기감시 및 자기 규율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학교의 시험과 검열문화이다.[17] 획일화된 문제의 양식과 그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사유의 구조를 통해서, 더 나아가 사유의 내용마저 규정하는 검열의 문화가 입시제도에 존재해 왔다. 미성숙한 존재인 청소년들을 교화하고 성숙시켜야 할 사회 구조적 통제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계속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과는 달리, 상호 존중의 만남과 건강한 의사소통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획이

17) 목영해, 『현대교육사상: 진보주의 교육론에서 노마디즘 교육론까지』 (서울: 문음사, 2009), 115.

www.kci.go.kr

아니며, 우선적으로 쌍방 간의 변화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상호 간에 자기표현의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서로의 사유의 방식과 가치구조가 상호 도전의 과정을 일으킬 때 새로운 제 3의 길을 함께 발견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셋째, 새로운 소통과 대화를 시도하려는 기획조차도, 그 기획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소통의 형식과 원칙들이 규정되고, 검열의 기제가 작동되며, 여전히 소통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소음 또는 갈등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치부하게 된다. 그러나, 소음이 없이는 진정한 소리를 구별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기에, 푸코가 지적하는 것처럼, 소통의 실제적 목적은 소음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들과 기성세대들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은 하나의 획일적 소통의 기획이 아니며, 또한 단순히 갈등의 부재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스스로를 자유롭게 표현해 낼 가능성의 장을 확보해 내는 것이다. 그 장을 여는 일에 매우 중요한 것이 청소년 존재를 새롭게 읽어내려는 전략적 작업이다. 언제나 동의와 합의를 이루어내야만 하는 대화 구조 자체가 갖는 한계는, 한 번도 생각하고 상상해 보지 못했던 윤리적 실천과 지향점을 발견해내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기존의 사회의 흐름과는 다른 이질적이고 창의적 지향점, 그러면서도 책임적인 지향점을 바라볼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해 왔던 안정 지향적 관점 안에서의 논의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며, 대화에 참여해 온 자들이 스스로를 자기 비판적으로 바라볼 외부적 지점과의 접촉이 거의 차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 청소년들 간의 만남이 갈등과 소음처럼 여겨질 때, 그것이 긍정적인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스스로의 지향점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동성은

www.kci.go.kr

그들이 소위 '위험한 존재,' '불온한 존재,' 또는 '버릇없는 존재'이기에 미성숙한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기존의 소통과 대화의 방식에 '불온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버릇없게' 그 관계들을 재설정하는 긍정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불온한 존재로서의 청소년은 부정적 중심권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역동성을 담지해 낼 가능성을 품은 세대이다.[18] 기존의 사회적 문법과는 다른 새로운 '이질성'의 창출이란 가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은 다양성의 인정과도 맞닿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들이 열린 가능성으로 읽혀지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란 장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교회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교회는 여전히 사회와의 관계성에 침묵하고, 제도로서의 교회 공동체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소위 믿음 좋은 성숙한 신자를 양성하는 일에 여전히 몰두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V. 새로운 가능성의 존재와 교회의 역할

한국교회가 청소년들에게 자본주의적 내재적 가치들을 복음의 외피만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고, 내면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청소년들을 도덕적 주체로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기독교사회윤리학자 래리 라스무센(Larry L. Rasmussen)은 교회 구성원들의 도덕적

18) 최진석 외, 『불온한 인문학: 인문학과 싸우는 인문학』 (서울: 휴머니스트, 2011)을 참고하라. 청소년을 '불온한 존재'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청소년이 제기하는 기성 세대와의 관계 속에서의 불화, 또는 불협화음과 상관되어 있다. 사실 모든 만남과 대화 속에서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는 강박관념이 때로는 보다 교묘히 숨겨진 보안과 통제의 기제를 작동시킬 수 있음을 간과한다면, 진정한 합의 이전에 경험하는 불협화음은 창조적 동인일 것이다.

www.kci.go.kr

삶에 있어서 네 가지 핵심적인 교회의 역할을 설명함으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첫째, 교회는 구성원들의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도덕적 정체성 형성이 중요한 이유는 공동의 믿음과 공유되어진 가치의 구조가 삶과 행위의 실제적인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율과 정해진 법과 같은 이미 정해진 강제적 규정이 도덕적 삶의 동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다 더 나은 공동선을 향한 끊임없는 추동력은 쉽게 상실되어지고 말 것이다. 라스무센에 의하면, 도덕적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점검요소는 "집합적 도덕적 정체성"(collective moral identity)과 "집합적 기억"[19](collective memory)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응답의 경험들이 함께 쌓여지고, 기억되고 공유되어짐을 통해서였음을 보게 된다. 이를 통해, 라스무센은 기독교 공동체들은 하나의 삶의 방식을 중심으로 "집합적으로 도덕적 성품을 형성해 가는 공동체들"[20](communities of collective moral formation)이라고 분명히 지적한다. 이것은 현재의 청소년들이 각각의 개체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를 새롭게 인식할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동체적으로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쌓여진 도덕적 품성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이 시대 속에서 보다 인간다운 삶, 보다 정의로운 삶에 함께 연대하여 응답하는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며 그 장이 교회 공동체가 될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 덧붙여서, 라스무센은 도덕적 성품이 형성되는 것은 매우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임을 지적한다. 기계가 고장났을 때, 파손된 부분의 부품을 갈아 끼우는 것으로 단시간 안에 해결되

19) Bruce C. Birch and Larry L. Rasmussen, *Bible & Ethics in the Christian Life* (Minneapolis: Augsbrug Fortress, 1989), 122-123.

20) *Ibid.*, 124.

www.kci.go.kr

지만, 도덕적 성품의 왜곡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간이 매우 길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각의 개인들이 도덕적 주체로서의 성품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그것을 뒷받침해 줄 공동체의 경험들은 속성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품의 교체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언제나 새로운 상품으로 손쉽게 대체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 신화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한 존재의 도덕적 성품의 형성과정은 그렇게 존재 자체를 대체하는 신속한 상품화의 과정과는 전혀 다르다. 한 존재의 기억과 경험, 축적된 가치, 교육, 그리고 세계와의 상호작용은 한 존재의 삶의 역사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도덕적 주체로 정체성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형성해 가는 지속적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교회가 어떻게 세대 간 공유되어진 가치를 형성해 나갈 것인지, 보다 인간다운 사회를 향한 공동의 과제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회는 전통의 담지자로서 기능한다. 이것은 교회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나는 어떠한 이야기들의 한 부분인가? 또한 어떠한 전통의 일부분인가?"[21]를 질문하게 하며, 이러한 전통과의 영향관계 가운데서 기존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전통을 수립해 갈 윤리적 과제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전통은 도덕 계발에 도움을 주고, 공동체 윤리학의 내용을 제공하며, 도덕적 삶의 책무의 구조를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라스무센에 따르면, 전통의 담지자로서의 교회이해는 단지 현재적 사회적 책무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책무를 미래로까지 확대해 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22] 공동체의 도덕적 삶의 내용과 이야기들이 살아있는 역동적 전통으로서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1) *Ibid.*, 127.
22) *Ibid.*, 132.

www.kci.go.kr

는 점에서, 전통의 비판적 수용은 이미 미래의 다음 세대의 도덕적 삶과 깊이 연관될 수 밖에 없다.

셋째, 교회는 도덕적 숙고의 장이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인식의 영역을 넓힐 수 있고,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시각들을 비판적으로 접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유와 근거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23] 이러한 도덕적 숙고의 장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기성 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건강한 질문들을 던질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사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신앙적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본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신앙적 관점들이 사회와 관계하는 방식들을 접하고 평가할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넷째, 교회는 도덕적 행동과 실천의 주체이다. 라스무센은 도덕적 진리와 삶의 방식은 언제나 함께 가며 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한다.[24] 이 말은 교회 공동체가 믿고 있는 진리와 가치의 구조는 교회 구성원들의 실천의 결과물들을 이루어내는 근거가 되며, 그 실천의 결과들은 교회 구성원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히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지금 드러난 결과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믿고 의미 있다고 여기는 가치들의 실현의 과정, 끊임없는 믿음의 실천을 통한 실험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반 퍼슨(C. A. van Peursen)의 지적처럼, 인간의 본질 이해는 인간이 무엇이냐는 질문보다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청소년의 자기 실현과정에 도덕적 행

23) *Ibid.*, 137.
24) *Ibid.*

www.kci.go.kr

동과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다: “태도 설정과 가치 판단은 인간에게 부수물이 아니라 인간을 비로소 인간으로 만드는 본질적 요소이다.”[25]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함께 실천할 집합적 의미의 도덕적 주체들이 교회 내 청소년일 수 없을까 하는 점이다.

위에서 기술한 라스무센의 도덕적 삶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해가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를 르네상스 인문주의 전통의 독창적 계승자 잠바티스타 비코(Giamvattista Vico)의 다음의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코는 데카르트 전통에 근거해 명증한 진리를 추구해 온 철학적 전통이 청소년의 지적 발달과정에 적합하지 않음을 밝혔는데, 그 이유는 자연과학적 진리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실천윤리학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청소년의 교육은 무엇보다 “센수스 코뮤니스” (sensus communis), 즉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각능력, ‘공통감각’ 또는 ‘상식’을 훈련시키는 것을 일차적으로 삼아야 한다.[26] 왜냐하면, 데카르트식의 교육구조는 개연성이 있는 것들을 마치 거짓처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육의 구조 속에서는 아직 이루지 못한 미완의 존재를 향한, 아직 이루지 못한 미완의 관계성을 새롭게 바라볼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교육구조는 현재의 청소년들의 삶의 결과를 참과 거짓의 평가 구조로 규정하여 나눌 뿐, 그들을 열린 가능성으로 읽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공동체가 청소년이 도덕적 주체로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측면은 다가올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질서, 즉 하나님 나라가 대표하는 인간의 기본적 가치들을 청소년들의 현재를 견인해 나가는 급진적 추동력으로

25) C.A. van Peursen., 강영안·손봉호 역, 『몸, 영혼, 정신: 철학적 인간학 입문』(서울: 서광사, 1985), 202.

26) 강영안, 『인간의 얼굴을 가진 지식: 인문학의 철학을 위하여』(서울: 소나무, 2002), 61-62.

www.kci.go.kr

바라보게 한다는 점이다.

VI. 자신이 처한 기독교 전통을 다음 세대와 함께 읽기: 웨슬리 전통 새롭게 읽기

일반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청소년들의 삶의 단계에서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도덕적 내용과 그에 관해 숙고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처한 신앙전통은 청소년들의 삶을 스스로 이해하고 평가하고 표현해 내는데 어떠한 실천적 영성을 공유할 수 있을까? 감리교회 공동체를 통해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자는 웨슬리 당시의 도덕적 성찰과 실천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형성된 감리교 전통 중에서 청소년을 하나의 열린 가능성의 존재로 이해하고 그 지향점을 제시하는 점에 있어서 함께 주목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질문해 보면서, 이에 관해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27]

우선, 전체적인 측면에서 감리교 전통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 누리는 "선행은총"(prevenient grace)에 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다. 모든 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누구에게나 절대적 존재를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 그 존재에 관한 지식을 얻기 원하고, 그 존재를 느끼기 원하는 그 씨앗, 바로 선행은총이 심겨져 있음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

27) 여기서는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감리교 전통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공동체에 속한 청소년들이 그들이 처한 각각의 신앙전통 안에서 어떻게 도덕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관해 적극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함을 필자가 처한 콘텍스트에서 작업하려는 의도를 가진 부분임을 밝혀둔다. 신앙전통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임의적인 방향으로 빠져서는 결코 안되겠지만, 책임적이면서도 동시에 의도적인 해석은 적극적인 도덕적 실천을 동반할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한 은혜는 인간존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관해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어왔다는 "우리의 첫 번째 일시적 미약한 확증"(first slight transient conviction)을 느끼게 한다. 더 나아가 구원을 향한 영적 갈망과 회개와 믿음의 성장을 추구하게 된다.[28]

바로 이 씨앗이 이미 심겨진 존재로서의 청소년 이해는 그들이 성숙과 미성숙의 이분법으로 이해되어질 존재가 결코 아니며, 세대 간 함께 절대적 존재를 알아가는 영적 여행의 동반자임을 깨닫게 한다. 이런 영적 여정은 성숙과 미성숙의 구분보다 지속적인 성숙의 과정만이 이해되어지고 공유되어질 뿐이다.[29] 왜냐하면, 영적 여정은 미성숙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리교 전통이 이해하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세대와 더불어 청소년들은 도덕적 주체로서 성장해 나갈 과정 가운데 놓인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웨슬리의 관점을 살펴보면, 선행하는 은총의 보편성과 십자가 은총과 성령의 능력이 인간의 도덕적 주체성을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복시킨다는 점이다.[30] 청소년들 역시 그들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믿는 믿음을 살아냄으로써 기존의 지배적 가치와 영성에 대한 이해에 건강한 질문을 새롭게 던질 가능성을 가진 과정적 존재로

---

28)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he Book of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04* (Nashville: The UM Publishing House, 2004), 46.
부연해 설명한다면, 선행은총은 1)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이성적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은혜(restoration of reason), 2) 하나님 앞에 놓여진 인간의 실존적 현실을 이해하는 지식을 통해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knowledge of our situation before God), 3)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할 자유를 갖게 된 은혜(freedom to respond to God's offer, Jesus Christ)이란 내용을 포함한다.

29) 전인성이라는 차원에서 성숙의 질적 차이를 바라볼 뿐이지, 경쟁의 구도 속에서 제외될 존재는 아무도 없게 된다.

30) 유경동, 『기독교, 사회와 소통하기』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7), 33.

www.kci.go.kr

읽힐 수 있다.

다음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웨슬리 전통이 갖는 역동성은 사회적 약자를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천적 금욕주의' 영성을 웨슬리 자신이 평생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다는 점이다. 모든 종교가 몸의 실제적 참여와 훈련을 통하여 스스로 믿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내는 가장 기본적 밑거름으로 삼아왔음을 기억할 때, 웨슬리의 실천적 금욕주의가 갖는 사회적 의미가 잘 드러날 것이라 생각한다. 그가 영국 성공회의 고교회주의적이고 예식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가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의 매우 직접적인 접촉과 나눔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는 연대라는 감리교 사회윤리의 기본적 전통이 감성적이고 소비지향적이며, 외적 가치 지향성으로 빠지기 쉬운 다음 세대의 윤리적 지향성에 무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해 본다.[31]

일반적 이해의 경우, 금욕주의의 영성을 일종의 자기 억압이나 통제라는 부정적 의미와 연관시켜 바라보아 온 부분도 있었지만, 금욕주의 영성의 실제적 의미는 자신의 삶의 필요와 욕구를 스스로 조절해 내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자신의 자기중심적 욕구를 줄이고, 자신의 삶의 필요를 주변의 관계성들 간에 나눔으로써 생명을 살려내는 영성적 전통이다. 금욕주의는 "사회와 세계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물질을 남용하지 않고 공손하게 그것을 사용하도록 이끄는 마음의 태도와 삶의 방식"[32]이다. 주변의

31) Manfred Marquart, *John Wesley's Social Ethics: Praxis and Principle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2), 133-135. 웨슬리의 사회적 관심이 여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급진적인 현실참여 보다 온건하고 국가주도적 변화의 가능성에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들과의 실제적 접촉을 지속해왔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32) Larry L. Rasmussen, "Drilling in the Cathedral," *Dialog* Vol. 42:3 (Fall 2003), 217-218.

www.kci.go.kr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순하고, 단순한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의 구체적 방식이다. 자기조절로서의 금욕주의(*Enkrateia*)는 우리의 소비를 줄이고 타자들을 위해 자원들이 확실히 남겨질 수 있도록 한다.[33] 세상의 지배적 자본주의적 영성인 소비주의에 길들여진 청소년들의 감성주의, 향유적 가치추구, 이기적 성향을 띨 수도 있는 개인주의적 가치, 거룩한 삶에 대한 무관심 등이 자신의 욕망을 건강하게 조절해내는 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존재들을 살렸던 기독교의 금욕주의의 영성을 다시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웨슬리의 실천적 금욕주의가 갖는 의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평생의 실천적 동력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실제적 대안들을 다방면에서 찾아보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신앙공동체가 실천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삶의 규칙들을 제시하고, 그 실천이 갖는 사회적 적합성을 실제로 실험하였다는 측면일 것이다.[34]

웨슬리가 말한 경제적 삶의 원칙을 예로 들면, 실천적 금욕주의의 원칙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금욕주의는 자신의 기본적 의식주의 필요, 기본적 삶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생활의 힘과 건강을 유지

33) *Ibid.*, 127.

34) 예를 들면, 웨슬리는 클래스 미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응답으로 삶의 실제적 변화를 고민하면서, 클래스 멤버들 사이에서 1) 상호 돌봄 (mutual care), 2) 상호 지지(mutual support), 3) 상호 교정/지도 (mutual correction/ instruction), 그리고 4) 상호 책무(mutual accountability)의 원칙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지켜 나감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구체적 통로가 되도록 하였다.

웨슬리가 부에 관해서 말할 때, 언제나 웨슬리의 초점은 부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대표되는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체가 그에게는 죄였기 때문이다. 돈의 위험성은 돈을 사용하다보면, 신뢰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이웃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있었다.

www.kci.go.kr

하기 위해 적절한 영양섭취를 위해 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음식의 기호나 맛, 취향을 위해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기본적 삶의 필요를 채우고 난 후에 허락되어진 경제적 힘을 소유할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웨슬리에게 기본적 삶의 필요란 최소한의 필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기본적 필요이다. 이 점이 매우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금욕주의적 영성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선, 자신의 기본적 필요와 부양하는 가족들을 기본적으로 돌보는 일에 자신의 돈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살펴야 하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지켜 나가려고 하였다. 이처럼 웨슬리의 금욕주의적 영성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란 구도 가운데로 다시 놓여진다.

이와 같이 신학적 진리를 연역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보다, 실제적인 실천적 삶을 통해서 점검되어지는 '수행적 진리' (performative truth)를 보여준 웨슬리의 실천적 금욕주의의 영성은,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사회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책임적인 도적적 주체로서 자기 자신의 삶을 정위(self-positioning)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구체적 관계성을 실제로 살아내는 중요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중심적 삶이라고 하는 세상의 지배적 윤리적 가치를 넘어설 기독교 윤리학적 동인들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실제적 믿음에 근거한 웨슬리의 실천적 금욕주의는, 기독교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인간의 평등, 자유, 정의와 평화라는 인간의 기본가치들을 실현해 나가는 일에 청소년들이 열린 관심을 갖도록

www.kci.go.kr

도울 수 있을 것이며,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은 인간의 기본가치의 사회적 실천이 기독교가 동기의 차원에서는 기독교적 고유성(Proprium)을 가지지만, 그 실천의 연대적 차원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배타적 고유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마틴 호네커(Martin Honecker)의 이해[35]와 일면 통한다. 또한 웨슬리의 실천적 금욕주의가 인간의 기본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의 사회적 연대작업을 위한 한국 감리교회 청소년들의 윤리적 동인과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해 본다.

VII. 나가는 말: 기독교 사회윤리적 과제로서의 세대 간 관계 재설정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 각각이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읽어내고, 표현해 내면서 그 가운데 만들어지는 소통의 소음과 갈등을 창조적인 생산의 가능성으로서 재설정해 나가는 작업이 요청되어짐에 주목하면서, 다음 세대와 기성 세대의 관계성과 윤리적 가치구조들을 이 글에서 읽어왔다. 갈등의 구조는 서로의 삶의 이해와 표현을 통제하려는 시도로부터 발생했고, 그러한 통제는 매우 위계적 관계성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위계적 관계구조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눌려 있었던 자기표현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다음 세대는 자신의 삶의 경험이 주는 통찰을 분별하고, 표현할 힘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삶과 그 주변의 관계성을 스스로 읽어내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

35) Martin Honecker,『사회윤리학 이론의 구상』(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8), 20. 한국 감리교 전통 내 청소년들이 열린 가능성의 존재로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스스로 찾아가는 것 과정 자체가 호네커가 말하고자 하는 보다 인간다운 삶에 대한 기독교의 동기적 고유성과 깊이 연관된다고 필자는 바라본다.

www.kci.go.kr

게 될 때, 책임적 주체로서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회적 관계성을 전략적 '지도 그리기 작업' (mapping)으로 새롭게 읽어내려는 시도를 하는 제레미 크램프톤 (Jeremy W. Crampton)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글쓰기 작업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권위주의적 체계에서의 글쓰기를 "고해성사적 글쓰기"(confessional writing)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글쓰기는 "자기 삶 글쓰기"[36](self-writing)가 될 것이다. '고해성사적 글쓰기'란 누군가 자신의 이해와 표현을 검열할 권위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쓰는 수동적 글쓰기, 즉 통제적 자기표현이라면, '자기 삶 글쓰기'는 자신의 경험과 배움이 주는 삶의 의미를 스스로 질문하고 풀어내는 글쓰기인 것이다. 이를 통해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고, 권위와의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하는 전략적 글쓰기이기도 하다. 여기서 글쓰기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는 스스로의 작업이자, 기존의 관계성에 대한 저항의 장이고, 새로운 관계성을 창출해내는 기초 작업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 자율성, 저항성, 감수성이야말로 '자기 삶 글쓰기'의 특성과도 긴밀히 연관될 것이다.

사실 이것은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성 세대 중에도 억눌리고 규정되어진 억압의 기억이 있는 자라면 이러한 자기표현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세대 간의 평화란 이러한 자기표현의 풍성함에 근거한 새로운 관계성의 창출이다. 종교의 의미가 "새로운 관계의 재설정"(a re-relating) 또는 "새로운 재연합"[37](a re-bonding)이라고

---

36) Jeremy W. Crampton, *The Political Mapping of Cyberspa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93-114. 이러한 '자기 삶 글쓰기'는 여성신학이 여성 스스로의 경험이 신학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던 맥락과 맞닿는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의 삶의 늘 통제받고 검열 받았던 청소년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의 경험과 감정, 배움의 과정이 던져주는 삶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

37) John Chryssavigs, *Beyond the Shattered Image* (Minneapolis, MN: Light & Life Publishing Company, 1999), 44.

www.kci.go.kr

한다면, 종교는 서로 다른 존재들을 다시금 관계시킴으로써 분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와 기성 세대 간에 주어진 기존의 관계들을 새롭게 읽어나가고, 새롭게 그 관계를 설정하고 지향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매우 신앙공동체가 관심해야 할 실천적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관계 재설정에서 주목하게 되는 평화란, 갈등의 부재를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갈등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증진시키는 일에 창조적으로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에 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하는 윤리적 동인이 된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세대 간의 자기표현의 장이 신앙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더욱 세워져야 할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강영안. 『인간의 얼굴을 가진 지식: 인문학의 철학을 위하여』. 서울: 소나무, 2002.

공현 외(인권교육센터 '들'). 『인권, 교문을 넘다』. 서울: 한겨레에듀, 2011.

목영해. 『현대교육사상: 진보주의 교육론에서 노마디즘 교육론까지』. 서울: 문음사, 2009.

박충구. 『한국사회와 기독교윤리』. 서울: 성서연구사, 1995.

박충구. 『예수의 윤리: 혼란과 갈등의 시대에 생명과 평화의 길 찾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유경동. 『기독교, 사회와 소통하기』.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7.

이진경. 『노마디즘1』. 서울: 휴머니스트, 2002.

조한혜정.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 서울: 또 하나의 문화, 2000.

조한혜정. 『왜 지금, 청소년?』. 서울: 또 하나의 문화, 2002.

최진석 외. 『불온한 인문학: 인문학과 싸우는 인문학』. 서울: 휴머니스트, 2011.

Marquart, Manfred. *John Wesley's Social Ethics: Praxis and Principle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2.

Matthew, Fox., 김영명, 문희춘 역. 『새로운 종교개혁: 창조영성과 기독교의 변혁에 관한 95개조 반박문』. 서울: 코나투스, 2010.

Honecker, Martin., 남준우 역. 『사회윤리학 이론의 구상』.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Van Peursen, C.A., 손봉호, 강영안 역. 『몸,영혼,정신: 철학적 인간학 입문』. 서울: 서광사, 1985.

Birch, Bruce C. and Rasmussen, Larry L. *Bible & Ethics in the Christian Life*. Minneapolis: Augsbrug Fortress, 1989.

Chryssavgis, John. *Beyond the Shattered Image*. Minneapolis, MN: Light & Life Publishing Company, 1999.

Crampton, Jeremy W. *The Political Mapping of Cyberspa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McFague, Sallie. *Super, Natural Christians: How We Should Love Natur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www.kci.go.kr

Rasmussen, Larry L. "Drilling in the Cathedral." *Dialog* Vol. 42:3 (Fall 2003): 202-225.

UMC. *The Book of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04*. Nashville: The UM Publishing House, 2004.

논문투고일: 2012.10.31
심사개시일: 2012.11.27
게재확정일: 2012.12.19

www.kci.go.kr

• 국 문 초 록 •

청소년들은 육체적, 정신적 성숙의 과정을 밟고 있는 과정적 존재일 뿐 아니라, 또한 그 사회의 가치들에 대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 가고 있는 매우 역동적 존재이다. 한국교회는 청소년들이 도덕적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청소년들에게 성서적 적합성과 사회적 적합성 사이의 균형, 신앙과 이성의 긴장관계의 영역을 제공해 주기보다 오히려 근본주의적 영성에 기초한 획일적 사고구조를 강요해 오기도 했다. 이로 인한 청소년들과 기성세대 간의 갈등을 새롭게 생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생긴다. 세대 간 갈등이란 소통과 대화를 통한 인간성의 회복이란 지향점을 향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읽힐 수 있다.

기성세대의 경우, 생존을 위한 경제적 생산과 발전의 기획이라는 틀에서 복음의 가치구조마저 이에 맞게 변형시킨 질서신학적 '수목적 체계'의 패러다임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반해, 청소년들은 생존욕구보다 감성적 향유의 가치를, 획일성의 가치를 교육구조를 통해 강요받았으나 다양성을 예찬하고, 집단성 보다는 개체성을, 공동체적 가치보다는 개인적 가치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동시에 청소년 세대는 자본주의의 가치에 깊이 영향을 받아 세계화, 상업주의의 문화적 속성을 공유하는 집단적 특성도 강하게 드러낸다.

이 갈등의 구조는, 권력을 통한 타율과 통제, 그리고 폭력성을 거절해 온 기독교 공동체의 평화주의 전통과 유산을 통해서 인간의 개체성과 자율적 실천능력이 새롭게 발휘될 창조적 가능성의 영역으로 읽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래리 라스무센은 도덕적 성품 형성의 장으로서 교회공동체는 집합적 도덕적 정체성과 기억을 형성하는 장이며, 도덕적 숙고와 실천이 이루어지며, 신앙과 이성의 균형 속에서 공동의 경험을 나누는 장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청소년 삶의 윤리적 가치구조가 갖는 특성들이 세계화 상업주의, 소비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웨슬리의 선행은총 이해와 실천적 금욕주의로부터 인간 기본가치의 실천(지속적 성화의 가능성, 약자에 대한 실제적 관심과 연대, 청지기적 삶)에 관한 한 방향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청소년들 스스로 검열과 통제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도덕적 주체로서 스스로 풀어내는 힘, '자기 삶 글쓰기'가 가능한 존재로 세워질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관계성을 재설정해 내는 도덕적 책임주체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청소년 존재, 세대갈등과 평화, 도덕적 주체, 집합적 도덕적 정체성, 실용적 금욕주의

www.kci.go.kr